

49~50 차시

교과서 144~149 쪽

1 | 실업과 국민 경제

■ 학습 목표

실업의 의미와 관련 지표를 이해하고, 실업의 종류와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 평가 계획

- 실업의 의미와 실업 관련 지표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실업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원인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 실업의 영향과 실업의 종류에 따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수업의 주안점

-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업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실업 관련 지표를 통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실업의 종류를 원인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직접 설명해 보도록 유도한다.
- 실업의 영향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살펴보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수·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1: ㉔와 ㉕에 들어갈 현상은 무엇인가? - 질문 2: 실업과 물가 상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학생들의 생각을 발표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44쪽 도입 활동
전개	강의 및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 및 실업 관련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실업 관련 지표를 도표와 그래프를 통해 이해시킨다. • 우리나라 실업률의 변화를 파악하고,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를 찾아 발표하게 한다. • 우리나라 실업률이 높았던 시기의 주된 원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 실업의 종류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찾아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45쪽 더 알아보기 • 교과서 147쪽 읽기 자료 • 교과서 147쪽 읽기 자료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 청년 실업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48쪽 더 알아보기
	탐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실업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149쪽 활동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된 경우의 실업을 무엇이라 하는가? • 다음 차시 예고: 2. 인플레이션과 국민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 2. 비자발적 실업

교과서 내용 정리

1. 실업의 의미

(1) 실업: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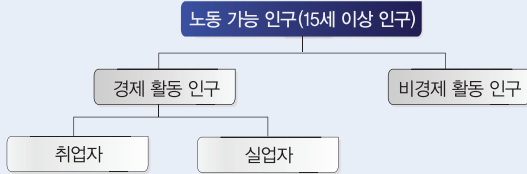
(2) 실업 관련 지표(고용 지표)와 관련된 인구의 구성

- ① 노동 가능 인구: 경제 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
- ② 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취업자 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한 사람

실업자 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

③ 비경제 활동 인구: 노동 가능 인구 중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 실업을 통계를 위한 인구 분류도

(3) 실업 관련 지표(고용 지표)

$$\begin{aligned}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 \text{경제 활동 참가율} &= \frac{\text{경제 활동 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text{청년 실업률} &= \frac{\text{15~29세 실업자 수}}{\text{15~29세 경제 활동 인구}} \times 100 \end{aligned}$$

2. 실업의 원인과 종류

(1) 자발성을 기준으로 나눈 실업의 종류

- ① 자발적 실업: 스스로 실업자가 된 경우(예 마찰적 실업)
- ② 비자발적 실업: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된 경우(예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2) 원인에 따른 실업의 종류

- ① 마찰적 실업: 직장을 이동하거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 ②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
- ③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으로 이전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
- ④ 계절적 실업: 계절적 변화로 특정 시기에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하는 실업

3. 실업의 영향

- (1) 개인적 영향: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고통, 자신감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 (2) 사회적 영향: 인적 자원의 낭비, 사회적 불안 유발

4. 실업의 대책

- (1) 마찰적 실업: 고용 관련 정보 제공 및 탐색 과정 지원
- (2) 경기적 실업: 공공사업 실시, 정부 지출 확대
- (3) 구조적 실업: 직업 교육 활성화 및 기술에 맞는 일자리 정보 제공
- (4) 계절적 실업: 농공 단지 조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 기업 지원금 지급

수능 Point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업 관련 지표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업을 원인별로 구분하여 종류와 그 대책을 찾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교과서 해설

도입 활동

교과서 144쪽

자료 해설 | 수업 시간에 학생이 고통 지수 관련 신문 기사를 보고 교사에게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실업과 물가가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이다. 고통 지수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수치화하기 위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해 구한 지수이다. 고통 지수의 값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삶의 고통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 ㉔와 ㉕에 들어갈 현상은 무엇인가?

예시 답안 | ㉔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일

자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가계 소득의 감소가 소비 위축, 기업의 생산과 투자 위축을 가져와 국민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나아가 실업으로 인한 가계의 위기는 빈곤층 확산, 가족 해체, 생계형 범죄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㉕의 경우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화폐 소유자와 실물 소유자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어 소득이 불공정하게 재분배된다. 또 장기적인 투자보다 단기적 투기가 증가하여 경제적인 불안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 상품에 비해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져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여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

2. 실업과 물가 상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시 답안 |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 급여 지급, 재취업 교육, 취업 정보 제공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 원인에 따라 대책을 달리할 수 있다.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하여 물가가 상승하였다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경제 주체들의 건전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총공급이 총수요를

초과하여 물가가 상승하였다면, 기술 혁신이나 생산비 증가 요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다양한 실업 관련 지표들 교과서 145쪽

자료 해설 | 다양한 실업 관련 지표들을 ‘고용 지표’라고 한다. 고용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각각의 고용 지표를 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지표 관련 인구 구성은 통계청에서 매월 국제 노동 기구의 기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조사를 한다.

● 실업률과 고용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예시 답안 | 고용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실업률이지만, 이는 경제 활동 인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준비자, 구직 포기자 등 실질적으로 실업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통계에서 제외하여 체감 실업과 괴리가 나타난다. 이에 실제적·체감적 실업자도 모두 포괄한 고용률을 관찰하는 것이 실업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계속 변하고 있다 교과서 146쪽

탐구 목표 | 1996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도별 실업률과 실업자 수 변화 추이를 통해 실업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찾아보고, 그 시기의 경제적 현상과 연결시켜 실업률이 높았던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 해설 | 1998년에 실업률이 7%로 가장 높았으며, 실업자 수도 149만 명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많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와 관련이 있다.

1.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언제인지 말해 보자.

수업 가이드 | 단지 그래프의 위치만 확인하여 발표하게 하지 말고 실업률과 실업자 수를 모두 확인하여 그 값이 가장 큰 연도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이전 지표와 값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변화하였는지도 확인해 보게 한다.

예시 답안 |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98년으로, 실업률이 7%이다. 다른 연도에 비해 3% 정도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높았으며, 실업률과 더불어 실업자 수도 늘어나 1996년에 비해 100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2.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주된 실업의 원인이 무엇인지 토의·토론해 보자.

수업 가이드 |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1998년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찾아보게 하여 실업의 발생 원인을 유추하도록 한다. 특히 1998년이 외환 위기 시기임을 인식하게 하고 그로 인해 실업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시 답안 | 1998년은 외환 위기 시기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시기였다.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는 경제 규모의 축소와 국내 총생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 시기를 경기 침체기로 볼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줄고 이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즉, 1998년에 실업률이 가장 높아진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읽기 자료 고용 유발 계수로 본 구조적 실업

교과서 147쪽

자료 해설 | 본문의 생산 설비 자동화와 첨단 산업 발전으로 인한 고용 유발 효과 감소에 대한 지적은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한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 감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조적 실업의 증가를 가져온다.

더 알아보기 청년 실업,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

교과서 148쪽

자료 해설 | 청년 실업의 문제는 단순히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여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보자.

수업 가이드 |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 발표하게 한다.

예시 답안 | 대기업 취업 전 중소기업 의무 취업 제도, 대기업 취업 중심의 구직 분위기 타파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취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취업 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 활성화 등이 있다.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교과서 149쪽

탐구 목표 |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

자료 해설 |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면 경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정부의 지출 증대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은 마찰적 실업과 같이 취업 정보의 부족을 해결하여 실업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 교육을 통한 구조적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대책을 제시해 보자.

수업 가이드 | 제시된 대책들은 실업의 발생 원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계절적 실업의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그 점을 확인하고, 원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 밖의 다른 방안들은 없는지 제시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예시 답안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실업이 주로 발생하는 농한기를 대비하여 농공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을 봄과 여름에 잔디 썰매장으로 활용하듯이 새로운 아이템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정부에서 공공 근로 사업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충 자료

● 실업자와 취업자의 구분

교과서 145쪽

통계적으로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 가능 인구이면서

서 경제 활동 인구에 속해야 한다. 그런데 실업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서 진짜 실업자가 되려면 일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도 하고 있고, 취업하면 당장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빠진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어 실업자가 될 수 없다.

•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오르는 이유

교과서 145쪽

고용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은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답부터 말하면 항상 그렇지 않다. 고용률이 올라가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고용률이 하락했는데 실업률도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먼저, 고용률과 실업률의 산출 과정을 살펴보자.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현역 군인, 재소자 등을 제외한 생산 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 가능 인구란,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합한 것이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지만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노동 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장애인, 구직 단념자 등이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고용률과 실업률 산출 차이는 비경제 활동 인구의 포함 여부이다. 즉, 비경제 활동 인구가 고용률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되지만 실업률을 산출할 때에는 제외된다.

그러면 고용률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었던 구직 단념자 등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직 활동을 함에 따라 경제 활동 인구로 재분류된 가운데 이들이 취업하기보다는 아직 실업자로 남아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실업률을 산출하는 데 있어 분모인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했지만 분자인 실업자 증가분이 더 큰 것이다.

고용 사정이 악화되어 고용률은 하락했지만 실업자도 줄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 활동 인구 100명 중 취업자가 65명이고 실업자가 35명이면 실업률은 35%다. 고용 악화로 취업자가 60명으로 줄고, 기존 실업자 가운데 10명이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자와 경제 활동 인구는 각각 30명과 90명으로 줄어들어 실업률은 33.3%로 낮아진다. 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었던 실업자들이 고용 악화로 구직을 단념함에 따라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실업률은 상위권 수준으로 낮은 반면, 고용률은 하위권에 처할 정도로 낮다. 이처럼 실업률과 고용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구직 단념자 집단이 많기 때문이다. 고용률과 실업률 중 어느 쪽이 사회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유럽 선

진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 인구와 무관한 고용률이 경제 활동 인구에 의존하는 실업률의 지위를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 한국 개발 연구원, '클릭, 경제 교육' -

• 완전 고용과 자연 실업률

교과서 146쪽

다른 실업과 달리 경기적 실업은 경제 전체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거시 경제적인 정책의 문제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경기적 실업이 0으로 감소하면 실업률이 0보다 커도 '완전 고용'이라고 한다. 즉, 경제 내에서 다른 실업은 있고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하며, 이때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 자연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실업률로 정의하기도 한다.

• 졸업 시즌과 실업률의 관계

교과서 148쪽

여름에 잠이 줄고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 겨울에 잠이 많아지고 활동 시간이 짧아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계절에 따라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이다. 매해 1~2월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1~2월은 비경제 활동 인구였던 대학생이 졸업하면서 대거 취업 시장에 나온 반면, 기업의 취업 시장은 12월을 끝으로 잠시 쉬었다가 3월이 지나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졸업하는 1~2월과 8월의 실업률은 매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1~2월에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으려면 통계적 기법에 의해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실업률을 관찰하거나 전년 동기에 비해 금기에 실업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51~52차시

교과서 150~153 쪽

2 | 인플레이션과 국민 경제

■ 학습 목표

물가와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종류를 이해하고, 인플레
이션의 현상과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다.

■ 평가 계획

- 물가와 물가 지수를 이해하고, 물가 지수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른 종류를 이해하고, 그 현상들을 구분하여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 인플레이션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수업의 주안점

- 물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가 지수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원인에 따른 유형을 그래프를 통해 이해하고,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과 그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교수·학습 과정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학습 자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때 1,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발표하게 한다. - 지금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 같은 1,000원으로 초등학교 때와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전개	강의 및 발표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와 물가 지수의 의미를 설명한다. •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원인을 설명하고, 그 현상들을 비교하여 발표하게 한다. • 스테그플레이션의 의미와 그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모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그플레이션의 역사적 사건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여러 대책의 모의 실험을 통해 이해하게 한다. 	• 교과서 151쪽 그림 활용
	탐구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게 한다. •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유리해지는 사람과 불리해지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게 한다. • 디플레이션에 대해 조사하게 하고, 그 영향과 심각성을 설명한다. 	• 교과서 152쪽 그림 활용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성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각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인 가격을 종합한 후 이를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일컫는 말은? 2. 임금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종류는? • 다음 차시 예고: 1. 총수요와 총공급 	답 1. 물가 2.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교과서 내용 정리

1. 물가와 물가 지수

- (1) 물가: 각각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후 평균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
- (2) 물가 지수
- ① 의미: 물가의 움직임을 지수화한 경제 지표
 - ② 종류

소비자 물가 지수	통계청에서 주요 소비재 500여 개 내외의 가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지수 → 가계의 소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
생산자 물가 지수	한국은행에서 주요 원자재 900여 개 내외의 가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지수 → 생산비와 관련되어 이후 물가 변동을 예측하는 데 유용함.
GDP 디플레이터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간의 비율 → 물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함.

2. 인플레이션의 의미와 원인

- (1) 인플레이션의 의미: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 (2) 원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유형
- 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주로 경기 호황 때 나타나며,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수요(총수요)가 증가하여 발생
 -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나 생산 요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으로 발생
 - (3)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

3. 인플레이션의 영향

- (1)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 저해: 장기적이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의 감소
- (2) 부와 소득의 불공평한 재분배: 실물 가치의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짐.
- ① 유리해지는 사람: 실물 소유자, 채무자, 자영업자, 사업자
 - ② 불리해지는 사람: 화폐 소유자, 채권자, 봉급 생활자, 연금 생활자

(3) 경상 수지 악화

- ① 환율의 변화가 없을 경우 국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 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가 악화됨.
- ② 수출업자는 불리해지고, 수입업자는 유리해짐.

4. 인플레이션의 대책

(1)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따른 대책

- 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 통한 물가 안정
- ②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기술 혁신, 경영 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노력 필요

(2)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

- ① 가계: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 활동, 과소비 및 낭비 억제
- ② 기업: 기술 및 경영 혁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
- ③ 정부: 적절한 총수요 관리와 재정 정책 실행
- ④ 중앙은행: 적절한 통화량 조절을 위한 통화 정책 실행

- (3)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기업의 생산 활동 위축으로 국민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예 세계 대공황).

수능 Point

가격과 물가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물가 지수의 특징과 활용에 대한 파악해야 한다. 특히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실질 국내 총생산,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디플레이터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경우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원인에 따른 유형별 변화를 이해하고 총수요, 총공급 곡선의 변화로 인한 물가와 국내 총생산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유리해지는 집단과 불리해지는 집단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대책 중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과서 해설

읽기 자료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교과서 152쪽

자료 해설 | 필립스의 연구 결과는 경제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기 불황을 맞이하여 어느 국가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고 하자, 그 덕분에 실업률이 낮아지지만 물가 역시 꿈틀거린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는 국가에서 긴축 정책을 사용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 대가로 실업률이 상승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놓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상충 관계(trade-off)에 있다고 말한다. 즉,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달성하지 못하므로, 하나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목표를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한국 개발 연구원, '클릭, 경제 교육' —

배운 내용 정리하기

교과서 153쪽

1	실업의 종류	원인	대책
	자발적 실업	직장을 이동하거나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	고용 관련 정보 제공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로 발생	공공사업 실시, 정부 지출 확대

구조적 실업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발생	직업 교육 활성화
계절적 실업	계절적 변화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로 발생	농공 단지 조성, 공공 사업 실시

2 (1) X, (2) O, (3) O

보충 자료

• 물가 지수의 활용

교과서 150쪽

물가 지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우선 화폐 구매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전에 비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물가의 변동에 따라 화폐의 구매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물가 지수는 경기 동향이나 상품의 수급의 변동을 판단하는 도구로도 유용하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환산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 다양한 물가 지수

교과서 150쪽

(1) 소비자 물가 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수로서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몇백 개의 특정 품목들을 선정하고, 이 품목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여 작성하는데, 동일한 상품 묶음에 대해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한다면 물가가 상승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기준 연도는 2005년(2005년=100)이며, 조사 대상은 전국 38개 도시의 489개 재화와 서비스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조사 대상 489개 품목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다를 것이다. 489개 품목은 가계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0,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해 선별이 되는데 489개 중에서도 가계 지출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있을 것이고,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할 때에는 489개 품목을 시장 거래액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균한다.

사람들은 보통 몇백 개 품목의 가격 변화를 두루 고려하여 물가 변동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로 구입하는 몇 개 상품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지수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 152개를 선정하여 생활 물가 지수를 별도로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2) 생산자 물가 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 물가 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출하하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물가 지수로, 1910년부터 편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통계 중 하나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 조사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원재료·중간재·최종 자본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포괄 범위가 좀 더 넓은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생산자 물가 지수의 기준 연도는 2005년이며, 조사 대상 품목은 884개(재화 801개, 서비스 83개)이다.

(3) GDP 디플레이터(GDP deflator): 명목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그해 가격으로 측정한 것이다. 반면에 실질 GDP는 그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고정된 기준연도 가격으로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량이 같은 두 지표를 비교한다면 물가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이 물가 지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GDP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기준연도의 경우 명목 GDP가 실질 GDP와 같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 된다(경우에 따라서 100을 곱하기 전의 수치를 GDP 디플레이터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앞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나 생산자 물가 지수(PPI)와 달리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이 작성·공표하고 있다.

-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

• 하이퍼인플레이션

교과서 151쪽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 %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는 대부분 전쟁이나 혁명 등 사회가 크게 혼란한 상황 또는 정부가 재정을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해 통화량을 대규모로 공급할 때 등이다.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 패전 직후인 1920년대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하였지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탓에 정부가 화폐 발행을 남발하였고 이에 따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1922년 5월, 1마르크였던 신문 한 부의 가격은 1년여 후인 1923년 9월 1,000마르크로 1,000배나 뛰었다. 이어 신문 값이 100만 마르크로 다시 1,000배가 뛰는 데는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치면서 액면가 100조 마르크 지폐가 발행되었을 정도이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46년, 헝가리에서는 무려

4,200조 %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터키는 1990년대 후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대규모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다. 1980년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 국가들은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였고, 그 결과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외채 위기를 경험하였다. 하이퍼인플레이션 문제는 단순히 화폐 액면 단위만을 변경시키는 디노미네이션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 한국경제, '경제야 놀자' -

• 스태그플레이션

교과서 151쪽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쉽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석유 파동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에는 적절한 대응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필립스 곡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단기적으로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충 관계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쉽다. 만약 반대로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긴축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실시하면 역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충 관계 때문에 실업률은 단기적으로 상승하기가 쉽다. 이처럼 주로 공급 충격에 의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적절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다.

- 한국은행 경제 교육 -

• 애그플레이션

교과서 151쪽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은 농업이라는 의미를 가진 '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반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한 시사 주간지에서는 옥수수로 대체 연료인 에탄올을 생산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옥수수 값이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옥수수를 연료로 사용하는 식품은 물론 옥수수가 쓰이는 각종 제품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쓰임새가 무척 다양한 옥수수 값 상승의 영향은 과자나 빵 등 식품의 가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옥수수로 만들어진 감미료는 설탕의 대체재로 각종 청량 음료나 사탕 등에 쓰이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축들의 사료로 쓰임에 따

라 가축을 기르는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계란, 우유, 베이컨 등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종이나, 옷, 기저귀, 삼푸, 페인트 등에도 옥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애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와 이상 기상 등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의 감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사 농경지 및 농가 수 감소,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개발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폭등한 것 등을 들고 있다.

- 한국은행 경제 교육 -

• 디플레이션

교과서 153쪽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디플레이션,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기대한다면 수요가 위축되어 경제를 불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릴 것이고, 이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는 불황에서 탈출할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미래 기대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소비를 미룬다.

디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구입한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질 이자율이 커지면서 대출금을 갚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집을 팔고 싶어도 디플레이션으로 주택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형편이다.

만약 가계가 주택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 준 은행이 부실해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실질 이자율을 올리고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한국 개발 연구원 경제 정보 센터,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

-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를 이해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다.

교수·
학습 과정

- | | |
|------------|---|
| 수업 지도 및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분배의 불균형의 문제와 경제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찾아 조사해 보도록 한다. |
| 평가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 분배 상황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자료
해설

자료 1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펜(J. Pen)이 쓴 “소득 분배”라는 책에는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재미있는 설명이 나온다. 가상의 가장행렬이 있다. 이 행렬에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출연한다. 흥미로운 것은 출연하는 사람들의 키가 각자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점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키다리로 출연하고,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은 평균 신장(170 cm)으로 출연하며,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난쟁이로 출연한다. 이 가장행렬은 영국에서 1시간 동안 벌어진다. 영국의 모든 인구 모델이 1시간 동안에 모두 출연해야 하므로 이 가장행렬은 빠르게 진행된다.

가장행렬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땅속에 파묻고 거꾸로 나타난다. 거꾸로 서 있다는 것은 키가 마이너스(즉, 소득이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즉, 파산한 사업가나 빚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지나가고 나면 마치 개미처럼 땅바닥에 붙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소인국 사람들처럼 키가 몇 cm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이 지나가고 한참 뒤에 키가 1m가 채 안 되는 난쟁이들이 등장한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노약자와 실업자, 장사가 잘 안 되는 노점상, 사람들이 알아 주지 않는 천재 화가 등이 그들이다. 그 다음에는 1m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30분이 지나도록 계속 난쟁이들만 등장한다. 그래서 펜은 이를 ‘난쟁이의 행렬’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한 사회 안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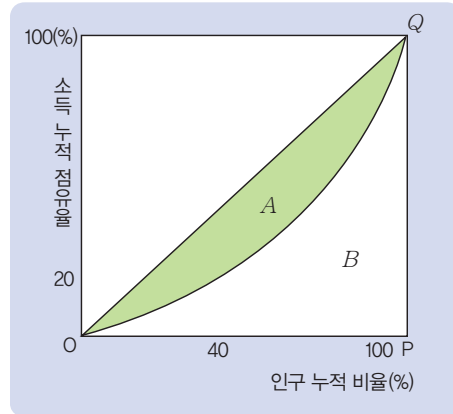
가장행렬이 시작된 지 48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평균 신장(170 cm)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평균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키가 급속히 커진다. 54분이 되면 키가 2m가 넘는 키다리들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는 5m가 되는 거인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군 고급 장교, 국영 기업 기술자, 평범한 변호사 등이다.

59분이 되면 8~12m나 되는 거인들(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 고등 법원 판사 등)이 등장하며, 그 다음에는 20m가 되는 거인들(성공한 의사, 변호사 등)이 등장한다. 마지막 몇십 초를 남겨 놓고는 수십 m의 초거인들이 등장한다. 주로 유명한 대기업의 임원들이고, 일부는 왕족들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인 필립 공은 60m이고, 석유회사 ‘셸’의 전무는 110m이다. 마지막 몇 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서 얼굴이 구름에 가려져 있으며, 마일(1마일=1,600 m) 단위로 키를 재야 한다. 대부분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소득에 비례하도록 키를 조정하여 가장행렬을 펼쳐 보니 대다수가 난쟁이고 키다리는 소수에 불과했다. 한 사회 안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난쟁이)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키다리)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장행렬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 동아일보, 2008. 4. 7. -

자료 2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는 효율적 분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다 보니 소득 분배에 대한 불균형, 즉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득의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면 사회 통합과 건전한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적절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만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 건전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 분배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는데,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율이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지니 계수 = $A/A+B$
 완전 평등 = 0
 완전 불평등 = 1

가장 최하위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을 왼쪽에 놓고 소득에 따라 점점 인구를 누적시켜 나간 비율과 그 사람들의 누적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점유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한다. 그 사회의 분배가 완전 평등일 경우 대각선 OQ와 같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곡선은 직각선 OPQ에 가깝게 된다.

지니 계수는 $A/A+B$ 의 값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 사회가 완전 평등이면 지니 계수는 0이며,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그 값은 커지게 된다.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	$\frac{\text{하위 40\%의 소득 점유율}}{\text{상위 20\%의 소득 점유율}}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평등 = 2 • 완전 불평등 = 0
5분위 배율	$\frac{\text{하위 20\%의 소득 점유율}}{\text{상위 20\%의 소득 점유율}}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 평등 = 1 • 불평등(클수록) > 0

● 자료 1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수업 가이드 활동 3개를 조별로 나누어 담당하게 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활동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료 1의 경우 형평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조별로 나누어 준 개인별 소득을 미리 그래프와 지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하여 나누어 준다.

● 조별로 무작위로 나누어 준 개인별 소득을 이용하여 로렌츠 곡선을 그리고,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율을 구해 보자.

수업 가이드 조별로 나누어 준 개인별 소득을 모두 모아 누적 소득을 구하고 조원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래프의 곡선을 그린다. 10분위 분배율과 5분위 배율의 경우 조별로 나누어 준 개인별 소득을 모아 10분위와 5분위를 구하고, 지수를 구하는 식을 통해 그 값을 구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2013년 지니 계수와 5분위 배율을 직접 구해 보자.

수업 가이드 통계청에서 직접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여 통계 자료를 찾는 방법과 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